



게이타쿠엔은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룬 일본 정원입니다. 1926년 스미토모 가문 15대 당주인 스미토모 기치자에몬 도모이토(호는 숲스이)가 저택과 함께 오사카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커다란 연못과 그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을 중심으로, 쓰키야마(인공 산)와 야즈마야(휴게실), 다실 등이 곳곳에 배치된 임천회유식 정원입니다. 계절마다 색다른 정원 산책을 즐겨 보세요.



【스미토모 기치자에몬 도모이토(숲스이) 에 대하여】

교토의 명문가 도쿠다이지 가문에서 태어나 스미토모 가문에 양자로 들어간 숲스이는, 가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사회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숲스이는 미술과 건축, 정원에도 깊은 조예를 지닌, 간사이를 대표하는 근대의 공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스이는 우나기다니에 있던 저택을 옮겨오면서 '빛나는 은혜와 조상의 은덕(照代之恩恵、祖先之余沢)'라는 의미에서 '게이타쿠엔(恵沢園)'이라고 이름붙였고, 1918년 완공되었을 때는 '게이타쿠엔(慶沢園)'으로 한자를 바꾸었습니다.



출처: 스미토모 숲스이(국립국회도서관) (<https://dl.ndl.go.jp/pid/2975135/1/6>)

【게이타쿠엔과 우에지 기법】

게이타쿠엔의 정원을 조성한 것은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조경가인 7대 오가와 지헤(小川治兵衛, 통칭 '우에지')입니다. 우에지는 전통적인 일본 정원의 기법에 더해 서양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확립했는데, 헤이안 신궁 신원, 마루야마 공원, 무린안 등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게이타쿠엔에도 역시 우에지의 혁신적인 발상과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원 조성에 착수하기 전, 숲스이와 우에지는 가나자와의 겐로쿠엔을 비롯해 다른 여러 유명한 정원들을 둘러보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에지는 이외에도 스미토모 가문 별장의 조경을 다수 도맡았고, 근대 일본 정원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출처: 오가와 지헤(국립국회도서관) (<https://dl.ndl.go.jp/pid/2983893/1/5>)



web site



게이타쿠엔

오사카부 오사카시 덴노지구 자우스야마초 1 (덴노지 공원 내)(우543-0063)
TEL:06-7494-3583(게이타쿠엔 관리사무소)



개장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4시 30분 입장 마감)
※5월과 9월의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

휴무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오사카 시내에 폭풍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임시 휴무

조세이안 이용과 시설 내 촬영 허가 관련 문의

TEL: 06-6761-1770 (사나다야마 공원 사무소)
※휴무일: 주말,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입장료

어른: 300엔
대학생 및 고등학생: 200엔 (대학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관의 학생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입장료 무료(증명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중학생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
· 오사카시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분
· 신체장애인 수첩 등을 지참하신 분
※오사카 시립 미술관 특별전을 관람하신 분은 입장료 100엔 할인
(게이타쿠엔 대표소에서 특별권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 적용)
(단체 할인과 중복해서 할인 불가)

게이타쿠엔 및 오사카 시립 미술관 통합 입장권

어른: 600엔
대학생 및 고등학생: 300엔 (대학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관의 학생 포함)

게이타쿠엔 관리운영 수탁자:
히비야 아메니스 / 오사카조엔도보쿠 / 데이주엔특별공동기업체



CRAFTING
HARMONY
WITH
NATURE.



게이타쿠엔

게이타쿠엔 원내 지도

조세이안
 ※ 이용 전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촬영 명소 C
 정원 너머의
 아베노
 하루카스를 찍기
 정적과
 미래가 만나는
 장소

1
 스하마 (모래톱)
 와 후나쓰키이시
 (바위 선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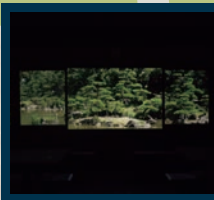


연못 가장자리에 배치해 둔 돌이 온화한 기슭 주변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육지와 함께 자연 속에 녹아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느껴 보세요.

오사카 시립 미술관



2 아즈마야(휴게소) '간코테이'
 삼면이 땀 뚫린 개방적인 구조의 휴게소입니다. 눈 앞에 게이타쿠엔의 볼거리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잠시 걸터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정원의 모습을 느긋하게 즐겨 보세요.




촬영 명소 A
 아즈마야에서
 정원 찍기
 창 너머로 삼면에
 걸쳐 펼쳐지는
 정원의 파노라마

- 로 표시된 부분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난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잔디밭이나 담불 등에
 출입이나 식사 및 음주를 삼가해 주십시오.
 ★관람에 걸리는 예상 시간은 20 ~ 40분입니다.



6 폭포
 커다란 바위로부터 흘러 떨어지는 폭포 주변에는 개구리나 거북의 모습을 닮은 돌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취가 느껴지는 고요한 공간을 즐겨 보세요.



촬영 명소 B
 연못 너머로
 미술관 찍기
 수면에 떠 있는
 또 하나의 미술관

5
 후나가타이시
 (배 모양 바위)



연못 가장자리에 놓인 '후나가타이시'와 반대편 기슭의 '후나쓰키이시'는 배가 출항하는 풍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옛 시절의 뱃놀이를 상상하면서 물가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별가요.

4
 고토지토로
 (안쪽 등롱)



고토(일본의 전통 악기)의 현을 떠받치는 '고토지(안쪽)'를 닮은 모양이 특징인 등롱입니다. 연못 주변에 조용히 서서, 물에 비친 모습이 정취있는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3 류즈이시(용머리 돌)
 물가에 나타난 용의 머리(龍頭)를 거대한 돌로 표현했습니다. 진달래 나무가 물통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용이 연못 주위를 도는 듯한 역동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